

# 중국의 홍삼 거래동향 및 수출 확대방안

2016. 8

# 중국의 홍삼 거래동향 및 수출 확대방안

## 1. 생산현황 및 시장동향

### □ 생산현황

- 중국 인삼 생산량은 23,500톤으로 전 세계의 70%를 차지하며 주산지는 지린성으로 2만 톤이 생산되어 중국 시장점유율 85% 수준을 차지함
  - 헤이룽장성, 랴오닝성, 허베이성, 산시성, 간수성, 후베이성 등에서 재배
- 인삼 생산량의 70%가 농가단위 소규모로 이루어지며, 규모화, 집단화된 생산 및 경영방식은 미 도입 상태로 영세한 단계
- 2000년대 이후 주산지 지린성을 중심으로 육성정책을 시작 표준화작업을 위해 15개현에 20개의 생산 시범기지를 조성
- 2007년부터 인삼산업 성장 및 보호를 위해 재배지역 제한 정책을 시행
  - 2010년까지 재배면적을 3,500~4,000ha 유지하고, 신규재배 승인 면적을 500 제곱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산림지역 재배금지
- 이에 따라 신규 재배지역 발굴 및 승인이 어려워 재배면적이 감소 추세로 2012년 기준 5,000ha 유지

### ■ 지린성 인삼 생산량 추이 ■

|          | 2009년 | 2010년 | 2011년 | 2012년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재배면적(hr) | 7,200 | 6,000 | 5,500 | 5,000 |
| 생산량(만톤)  | 2.27  | 2.7   | 2.2   | 2.0   |

\* 자 료 : 국가통계국

- 중국은 인삼산업 육성을 위해 「국가기관 개혁 및 업무전환 방안」 안전에 포함 시키고 ‘전국삼용제품표준화 기술위원회’에서 국가표준을 만들고 있음
  - 인삼관련 표준은 모두 60여 가지로 국가표준(GB/T)이 14개, 산업 표준(NY/T)이 10개, 지역 표준(DB) 35개

## □ 유통현황 및 거래동향

- 중국 인삼의 유통채널은 중의약방(약국)과 보건식품전문점이 대표적으로 거래량의 70%가량 차지
  - 인터넷 몰 거래량이 증가추세이나 고가식품으로 진품에 대한 의혹 등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
- \* 보건식품 전문점 : 약국허가를 미 취득 했지만 제한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매장(약재상도 보건식품 전문점)
- 향후 가짜제품에 대한 우려 심리로 신뢰도가 높은 고급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판매량이 늘어날 전망

## ■ 인삼 구매채널 분포 ■

| 유통채널  | 약국  | 보건식품<br>전문점 | 대형마트 | 백화점 | 기타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|
| 판매점유율 | 37% | 29%         | 15%  | 10% | 9% |

\* 자 료: 2013년 상무부

-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인삼 제품은 장백산 인삼, 한국 고려인삼, 미국과 캐나다 서양삼, 일본 동양삼 등임
  - 한국 고려인삼이 가장 인기가 높으며 중국 장백산 인삼, 미국, 캐나다 서양삼 순으로 인기가 있음
- 중국산 인삼 거래는 수삼은 미미하며, 홍삼으로 가공되어 70% 정도가 내수용으로 쓰이고, 백삼으로 30% 정도가 가공되어 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음
- 시중에 유통되는 형태
  -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 인삼으로 대 포장으로 유통(원삼, 미삼, 인삼근 등)
  - 가공제품으로 대포장 내에 독립 소포장으로 구성되어 유통(인삼차 등)
  - 대포장 안에 날개 포장으로 즉시 먹을 수 있는 포장 형태(서양삼)

\* 한국 인삼은 철캔을 사용하며, 내포장은 오동나무 또는 떡갈나무 이용

- 정관장 등 한국의 유명브랜드 모조품이 일부 거래되어 소비자를 현혹하고 홍삼시장을 왜곡하고 있음

### ■ 정관장 모조품 ■



### ○ 시장 거래가격

- 현재 중국 시장에서 수입산 홍삼 거래가격은 중국산 보다 훨씬 높음
- 고려인삼(정관장) 15.49위안/g으로 동인당 생산제품 2.49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으로 판매

### ■ 중국내 유통 인삼의 종류별 명칭과 특징 ■

| 종류  |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양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국/캐나다에서 수입한 인삼과 중국에서 재배한 서양인삼으로,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음</li> <li>- 기를 보충해주며, 열을 식히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에도 복용</li> <li>- 남녀 노소 누구나 복용</li> <li>- 절편으로 복용, 차로 우려내 복용, 씹어서도 복용</li> <li>- 다른 품종에 비해 기대효과가 크지는 않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|
| 백삼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국 인삼을 말려 하얀색을 띠</li> <li>- 가장 대중적이며 어디서든 쉽게 구매 가능하나, 가장 저렴하고 품질이 낮은 제품이라는 인식</li> <li>- 서양삼과 효능이 비슷, 원기를 보충하거나 혈을 보충하는 효능</li> <li>- 다른 중약재와도 함께 복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홍삼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홍삼은 고려삼이라는 인식이 존재</li> <li>- 열을 많이 낸다는 인식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 복용</li> <li>- 고혈압이 없는 사람과 나이가 든 사람이 복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</li> <li>- 부정적인 인식 존재 (과다복용시 코/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인식)</li> <li>- 다려서 복용하거나 슬라이스, 분말을 내서 복용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려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려삼은 한국삼과 북한삼을 통칭</li> <li>- 북한삼보다는 한국삼의 품질이 더 우수하다고 인식</li> <li>- 품질 및 효능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</li> <li>- 열을 나게 하므로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많이 복용</li> <li>- 고령자가 복용을 많이 하며, 젊은 층은 선호하지 않음</li> <li>- 선물용으로도 환영받음 (젊은층은 선물용으로 주로 구입)</li> </ul> |

## 2. 소비현황 및 시장전망

### □ 소비현황

- 중국산 소비행태는 수삼, 백삼 등 원삼형태로 40% 정도가 내수되고, 국내 제품 가공용으로 30%, 수출용 원료 등으로 30% 정도 소비됨.
- 소비는 동북지역은 미미하고 상하이, 광둥성, 저장성, 장쑤성 등 비교적 경제가 발달한 연해지역에서 대부분 소비됨
- 소비자들은 인삼 절편을 가장 선호하며 인삼채, 인삼차, 인삼근 순임
  - 인삼 제품과 형태가 다양해지고, 정교한 포장형태의 인삼제품이 증가
- 중국 소비자들은 홍삼(뿌리삼)을 연간 2~3회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됨.
  - 설이나 효친제(5월)에 부모, 연말에 보은자에게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
  - 뿌리삼 대부분 건강관리를 위해 구매복용하나 노인들 위주로 복용
- 건강의식이 높아지면서 구매력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경기불황, 중국 정부의 정풍운동에 따른 선물수요 감소로 소비가 둔화됨.
- 주 소비되는 제품형태는 인삼편으로 독립 포장되어 있으며 개봉하면 즉시 먹을 수 있으므로 식용, 휴대, 보관 모두 편리하기 때문
- 정관장을 비롯한 한국산 수입 브랜드는 포장이 독특하며 전통이 가미되어 제품에 신뢰가 간다는 여론임
  - 수입 서양 삼은 포장디자인이 백색이 위주로 현대적인 이미지가 강함

### ■ 인삼 제품별 중국소비자의 인식 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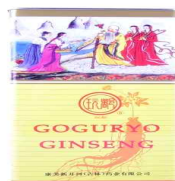
| 브랜드        | 한국 정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국 동인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캐나다 서양 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브랜드 이미지    |  |  |  |
| 소비자 브랜드 인지 | 전통적이며 믿음이 가는 브랜드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통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대적이고 건강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포지션        | 고급 소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통 소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대 소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자 료 : aT 연구보고서(2013)

## □ 시장전망

- 중국 정부의 5년근 이하 인삼 신자원식품 지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인삼산업에 투자를 확대중으로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
  - 제약회사 외에 대형 식품기업들의 인삼시장 진출도 가속화로 중국 인삼산업의 대형화와 현대화 예상
- 중국정부의 인삼산업 보호를 위한 재배면적 통제, 생산시범기지 조성, 표준화 작업을 실시 중으로 안정적인 산업으로 지속적 성장 예상
  - 산업 육성을 위해 「국가기관 개혁 및 업무전환 방안」 안전에 포함하고 ‘전국삼용제품표준화기술위원회’ 국가 표준(GB/T) 제정 및 수정작업 시행
  - \* 중국내 인삼관련 표준은 60여 가지로 국가표준(GB/T)이 14개, 산업 표준(NY/T)이 10개, 지역 표준(DB)이 35개
- 소득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식품 소비증대에 따라 건강관련 음료 산업이 활성화 및 인삼소비량 증대 전망
  - 보건식품시장 규모 : (12) 2,800억 위안 → (15) 4,500
- 최근 삼칠근 등의 약제가 홍보되면서 반응이 좋아 홍삼시장 수요 잠식
  - 삼칠근의 가격이 홍삼의 1/10 수준으로 젊은층, 서민층 대체재로 부각
- 한국 종자를 재배한 장백산 제품의 성장과 효능이 비슷한 수준으로 도달하여 한국산 고려삼 수요잠식 가능성이 큼
  - 일반적으로 한국 고려인삼의 효능과 품질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아 당분간 인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
- 최근 참다한, 황금홍 등 신규 브랜드가 신자원식품으로 등록하고 수입 판매되고 있으나 인지도 저하로 실적이 저조함
  - 정관장 브랜드는 중국인에게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함
- 현재 판매실적이 저조한 삼용망(蔘茸網), 1호점, 징둥 등 온라인몰의 판촉 등을 통한 여건 반전시 소비 붐 조성도 기대

■ 국가별 제품별 현황 ■

|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브랜드            | 국가/원산지 | 용량            | 가격(위안) | 제품형태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   | 강부래(康富来)       | 중국/미국  | 90g           | 138    | 서양삼절편 |
|    | 정관장            | 한국/한국  | 100g          | 13.8   | 홍삼음료  |
|   | 정관장            | 한국/한국  | 37.5g         | 581    | 홍삼뿌리  |
|  | 응패             | 중국/중국  | 0.7g*<br>96EA | 119    | 서양삼가공 |
|  | 동인당<br>( 同仁堂 ) | 중국/중국  | 160g          | 399    | 서양삼절편 |
|  | 캉메이(康美)        | 중국/중국  | 150g          | 239    | 고려홍삼  |
|  | 완허(万河)         | 중국/중국  | 150g          | 228    | 고려홍삼  |

\* 자 료 : 이하오디엔 홈페이지

### 3. 수입동향

#### □ 전체 수입동향

- 중국의 인삼수입량은 '11년 482톤에서 '15년 696톤으로 44% 급증함

《연도별 인삼제품 수입추이》

|          | 2011   | 2012  | 2013  | 2014  | 2015 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수입량(톤)   | 482    | 534   | 638   | 622   | 696   |
| 수입액(천불)  | 52,434 | 4,678 | 4,656 | 4,425 | 4,234 |
| 단가(불/kg) | 91.52  | 95.69 | 73.01 | 71.13 | 60.87 |

※ GTA(Global Atlas)

- 중국에서 수입되는 고려삼은 상하이, 서양삼은 광둥성을 통해 대부분 수입되어 유통됨(서양삼 수입량의 71% 차지)
- 2015년 수입비중을 보면 서양삼 수입량은 88%, 고려삼은 12%차지
  - 수입액 기준 시 서양삼 37%, 고려삼은 63%를 기록하여 고려삼이 부가가치가 높음을 보여줌

|     |          | 2013   | 2014   | 2015   |
|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서양삼 | 수입량(톤)   | 540    | 561    | 611    |
|     | 수입액(천불)  | 23,489 | 27,850 | 24,524 |
|     | 단가(불/kg) | 43.50  | 49.64  | 40.14  |
| 고려삼 | 수입량(톤)   | 98     | 61     | 85     |
|     | 수입액(천불)  | 23,074 | 16,394 | 17,818 |
|     | 단가(불/kg) | 235.45 | 268.75 | 209.62 |

※ GTA(Global Atlas)

《 국가별 수입 동향 》

| 구분  | 2013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2014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2015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| 물량<br>(톤) | 천불     | 수입단가<br>(불/kg) | 물량<br>(톤) | 천불     | 수입단가<br>(불/kg) | 물량<br>(톤) | 천불     | 수입단가<br>(불/kg) |
| 계   | 637.8     | 46,563 | 73.0           | 622.2     | 44,255 | 71.1           | 695.7     | 42,342 | 60.9           |
| 한국  | 92.4      | 21,694 | 234.9          | 57.8      | 15,691 | 271.6          | 72.9      | 15,836 | 217.3          |
| 캐나다 | 426.1     | 12,474 | 29.3           | 419.6     | 13,789 | 32.9           | 502.8     | 13,855 | 27.6           |
| 미국  | 114.1     | 11,015 | 96.5           | 141.4     | 14,060 | 99.5           | 108.0     | 10,669 | 98.8           |



## □ 한국산 수입동향

- 한국산 인삼 관련제품 수입량은 매년 감소추세로 15년 실적은 전년 대비 5.7% 감소한 34,791천불을 달성.
  - '16. 7월말 현재 수입액도 9,322천불로 전년(21,780) 대비 57% 감소
- '15년 총수입량 34,791천불 중 홍삼이 22,348불로 64%를 차지하여 최고이며 백삼, 수삼은 1천불 정도를 다소 상회하여 5% 미만임
  - 홍삼제품 중에서는 뿌리삼이 15,914천불로 71%를 차지하나 경기침체에 따른 선물수요 감소로 지속적으로 감소세임
- 중국의 건강 음료 시장 수요확대로 '12년 이후 인삼음료, 인삼액즙, 홍삼조제품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
  - 향후 수출 증대를 위해 뿌리삼 형태보다는 음료수 제품 개발필요

### 《 한국산 인삼관련 품목별 수입 동향》

(단 위 : kg, 천불)

|            | 2012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13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14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15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중량(kg)        | 금액            | 중량            | 금액            | 중량            | 금액            | 중량            | 금액            |
| <b>총계</b>  | 1,051,635     | 32,209        | 1,379,122     | 39,067        | 1,496,109     | 36,898        | 1,996,190     | 34,791        |
| <b>수삼계</b>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<b>45,840</b> | <b>2,023</b>  | <b>12,021</b> | <b>418</b>    | <b>30,512</b> | <b>1,059</b>  |
| <b>백삼계</b> | <b>4,162</b>  | <b>805</b>    | <b>3,189</b>  | <b>851</b>    | <b>4,719</b>  | <b>1,192</b>  | <b>5,398</b>  | <b>1,504</b>  |
| 백삼분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13            | 11            | 564           | 89            | 906           | 261           |
| 백삼조제품      | 9,274         | 427           | 13,631        | 328           | 11,637        | 628           | 24,838        | 435           |
| <b>홍삼계</b> | <b>76,804</b> | <b>26,833</b> | <b>93,549</b> | <b>29,071</b> | <b>93,506</b> | <b>26,718</b> | <b>72,981</b> | <b>22,348</b> |
| 홍삼분        | 566           | 79            | 5,017         | 806           | 1,438         | 298           | 6,867         | 1,448         |
| 뿌리삼        | 75,968        | 26,700        | 90,647        | 28,646        | 10,150        | 16,952        | 45,091        | 15,914        |
| 홍삼정        | 3,924         | 212           | 2,770         | 161           | 5,693         | 879           | 2,718         | 546           |
| 홍삼조제품      | 15,731        | 1,166         | 56,411        | 2,370         | 124,818       | 2,798         | 167,140       | 3,633         |
| 인삼음료       | 281,526       | 610           | 302,481       | 711           | 459,270       | 1,267         | 744,823       | 2,143         |
| 기 타        | 659,648       | 2,077         | 856,221       | 2,735         | 782,443       | 2,611         | 940,007       | 1,414         |

\* 자 료 : 한국 관세청

#### 4. 최근 대 중국 수출 감소요인

- 경기침체 및 지하경제 불황에 따라 홍삼제품 수요 전반적 감소
- 명절, 기념일에 소비의 주종을 이루던 선물 수요 감소가 주원인임
  - 과잉설비,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16년 GDP 성장률 6.6~6.8%로 전망
- 중국에서 재배하는 한국종자 품질향상으로 한국산 고려삼 시장 잠식
- 10년전 고려삼 종자 재배시작 최근 생산된 제품은 성상 및 효능이 흡사
  - 한국산 종자를 도입하고 토양개량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함
  - \* 한국의 고려삼 종자가격 : ( '12) 600위안/500g → ( '15) 160
- 동인당 등 유명업체는 한국산을 사용하나 일반업체는 중국산 사용경향
  - 한국산 홍삼 장기적 수출침체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 큼
- 향후 2년간 홍삼가격 저가유지를 전망한 업자들이 재고유지 최소화
- 장백산 일대에서 재배되는 한국종 생산품이 내년까지 대량 생산 예상
  - 홍삼 뿌리삼은 2년차 이후 향이 진하고 10년까지도 품위 유지 가능
  - \* 10년 이상 다량 보유로 경제력 과시를 하는 일부가구도 있음
- 최근 삼칠근 등의 인기상승으로 한국산 고려삼 수요가 대체되고 있음
- 삼칠근은 가격이 홍삼의 1/10 이하 수준으로 젊은층, 서민층에 반응이 좋음
- 화기삼은 건강, 보전 TV 채널 등에 유익성 대대적 홍보로 수요증가
  - 화기삼은 장점 홍보하고, 고려삼은 약사와 협의 복용 권장으로 승열 작용 간접적 홍보 실시
-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한 물량도 최근 증가하여 수요잠식을 하고 있음
- 무관세 지역인 홍콩을 경유 비합법적으로 반입되는 물량 상당함.
- 다이공을 통한 반입물량이 증가추세로 물량절감성 창남 시장의 거래 물량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
- 중국으로 직접 들어오는 밀수물량도 상당하다는 여론임
- 일반기업 생산제품 고려삼 품질이 다소 저하되는 경향임
- 성상은 변함없으나 색택이 다소 저조해짐
- ※ 검역 당국이 통관시 샘플을 다량 채취하여 수출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은 탐문 조사결과 사실무근으로 파악됨

## 5. 한국산 인삼제품 수출확대 방안

### □ 생산자 단체

- 세계 최고의 명성에 부응하는 제품생산 및 산업보호를 위한 생산농가의 자정 노력이 절실
  - 토양관리, 농약살포 준수 등으로 안정성 및 신뢰도 높은 제품을 생산
  - 식재간격, 복토 등 재배기술 노력으로 뇌두, 몸통길이, 지근 등 고려삼 고유의 형상을 가진 우수제품 생산
- 고려삼의 중국 재배 원천차단을 위한 종자판매 및 기술지도 금지
  - 수년전부터 농가에서 고려삼 종자 판매하여 중국으로 유입 제품 생산 중
- 집단재배, 생력화 재배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
  - 원료가격(수삼)이 중국산 보다 2배 이상 고가 형성에 따라 제조 원가상승

### □ 생산기업 및 유통업체

- 뿌리삼 일변도의 수출을 지양하고 음료, 즙 등 신제품 개발 및 수출추진
  - 경기회복이 쉽지 않아 선물용 소비는 감소되고, 소비 트렌드가 건강음료 선호하는 추세임
- 신유통채널 개발을 통한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로 활로 모색
  - 잠재적 수요층이 큰 고급주택가나 상권 핵심지역에 오프라인 몰 설치
  - 일심당, 동제당약방, 성대방원, 화평약방 등 중급브랜드 대형 약국에 한국 인삼 전문 취급점 지정하여 판매
- 미흡한 온라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삼전문 온라인 쇼핑몰 등 진출
  - 중국의 중약재 온라인 기업은 매매, 대리업무, 검사 등 다양한 업무를 제공하므로 초기진출이 용이
  - \* 야오통왕(药通网), 중야오춘텐디왕(中药材天地网), 야오통왕(药通网) 등
  - 고가제품으로 진입이 어려운 현재 온라인 시장을 홍삼음료, 홍삼즙 등 건강음료를 입점으로 활성화 도모
- 다양한 저가 제품 개발을 통한 소비층 저변확대
  - 저년근 삼을 이용한 홍삼정 신제품 출시 등으로 가격인하 도모
  - 인삼의 잎, 줄기 등 부산물을 활용한 건강 음료수 개발 등
  - 제품별 포지셔닝과 시장을 세분화해 시장의 수요에 부응

## □ 정부기관

- 병원용 첨단 의학제품 개발을 통한 획기적 수요창출 및 의학 산업 발전추구
  - 홍삼을 이용한 혈소판 응집 억제제, 항암제 등 혁신적 의학용 제품개발
  - 중국은 주사용(링거액) 의약품을 이미 개발하여 시판 중
- 한국산 고려삼에 대한 우수성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새로운 수요층 창출
  - 승열효과에 대한 오해 불식을 위한 의학자, 논문 등 적극적 홍보
  - 서양삼과 고려삼의 성분 비교분석 보고서 홍보로 우수성 지속적 홍보
  - 국제식품박람회, 전시회, 시음회 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 마케팅 실시
  - 건강잡지, 신문, 옥외광고, 이벤트행사, PPL, 인적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
- 신제품 개발, 포장디자인 고급화 지원을 통한 국가 브랜드화로 인지도 제고
  - 음료, 젤리, 비스킷 등 다양한 신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
  - 포장, 홍보물에 전통 분위기의 세련된 포장개발 지원으로 이미지 제고
- 우수한 인삼 생산과 수출용 원재료 확보 용이를 위한 지원책 강구
  - 고려삼 고유의 성분 및 성상 유지를 위한 복토, 시비 등 재배기술 지도
  - 수출업체 수출용(홍삼) 원자재 원활한 확보를 위한 구매자금 저리 지원

## 6. 종합의견

- 중국정부의 인삼 재배면적 통제 등 보호정책으로 안정적인 산업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신자원식품 지정에 따른 규제완화로 시장규모가 커지는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
- ① 경기 악화로 선물수요 감소
- ② 고려삼 종자 장백산 재배품 생산량 증가
- ③ 삼칠근 등 한국삼 대체재 등장
- ④ 승열작용 인식 팽배
- ⑤ 중국 식품기업 본격진출로 좁은 틈새
- ⑥ 유명 브랜드 모조품 유통
- ⑦ 노인에 치우친 소비층 편중 등의 비관적인 요인이 많음

- ▶ 최근 수출감소 원인은 상기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며,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
- ▶ 따라서 현재 부진한 대중국 수출 회복 및 지속적 증대를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생산농가, 가공 및 유통업자, 정부당국의 역할과 분담이 절실히 요구됨